

2025/2/5

LG생활건강

권우정 책임연구원
20240006@iprovest.com

4Q24 Re: 일회성 비용으로 시장기대치 하회

투자의견 BUY 및 TP 37만원 유지

올해 본업은 북미 중심으로 해외사업 확대 노력. 특히, 아마존 사업방식 B2B → B2C로 전환 예정

4Q24 Re: 일회성 비용으로 시장기대치 하회

4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1조 6,099억원(YoY 3%), 영업이익 434억원(YoY -21%)으로 낮아진 시장기대치 하회. 일회성 비용 200억원 감안시 낮아진 시장 기대치는 상회했음. 영업외비용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1,220억원 반영

〈화장품〉

매출 6,994억원(YoY 5%), 영업이익 110억원(YoY 50%) 시현

① 면세 채널은 769억원(YoY -11%) 시현. FIT향 매출 증가에도, 파이고 매출 감소 상쇄 부족. ② 중국 매출은 2,378억원(YoY 18%). 내수 소비 부진 지속에도 더후 견조한 성장 시현한 것으로 파악됨. 영업손실은 QoQ 축소. ③ 국내 온라인 및 H&B 채널은 4분기에도 두 자릿 수 성장 지속. 온라인은 쿠팡 견조한 가운데, 무신사/뷰티컬리 등 버티컬 플랫폼 매출 증가. ④ 화장품 이익은 해외사업 중심 매출 성장으로 개선. 화장품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중은 17% 시현. 더후 브랜드 투자 외에도 광고제/블랙프라이데이/메가와리 등 온라인 행사 참여 확대 및 인플루언서 홍보 진행으로 비용 지출 증가

〈생활용품〉

매출 4,995억원(YoY -1%), 영업이익 222억원(YoY 22%) 시현

피지오겔, 유시몰 등 주요 프리미엄 브랜드 매출 확대에도, 전반적인 내수부진 영향으로 매출 소폭 감소. 이익은 북미 사업 고정비 절감 효과, 믹스개선, 연말 재고 비용 감축 등으로 개선

〈음료〉

매출 4,110억원(YoY 3%), 영업이익 102억원(YoY -65%) 시현

탄산 매출 YoY 4%(제로 슈거/에너지 드링크 성장), 비탄산 매출 YoY -1%(커피/주스 카테고리 약세). 이익은 희망퇴직 비용, 장기 근속 관련 충당금 등 일회성비용 200억원 반영으로 부진. 일회성비용 제외시 영업이익은 YoY 증가

〈25년 가이드نس 및 전략〉

사측은 올해 가이드نس로 매출 YoY MSD% 성장을 제시. 올해 면세/방판 채널은 부진한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, 중국도 기저 부담 존재. 다만,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 확대 강화 예정. 올해 북미 본업 매출 가이드نس로 YoY 30% 이상, 아마존 YoY 70% 이상 성장 제시. 올해 상반기 내 북미 아마존 사업은 기존 B2B에서 B2C로 전환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 및 영업 진행 예정임. 한편, 올해 마케팅비 절대 금액은 YoY 증가 예상. 경쟁심화로 중국 투자 및 비중국 사업 동력 확보를 위한 자원 투입 불가피할 전망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.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전일기준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■ 투자 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■ 기준일자_2024.12.31

구분	Buy(매수)	Trading Buy(매수)	Hold(보유)	Sell(매도)
비율	96.9	2.5	0.6	0.0

[업종 투자 의견]

Overweight(비중확대):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
Underweight(비중축소):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

Neutral(중립):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

[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] 향후 6개월 기준, 2015.6.1(Strong Buy 등급 삭제)

Buy(매수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%이상
Hold(보유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~-10%

Trading Buy: KOSPI 대비 10%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
Sell(매도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% 이하